

결국 속대발 되나...가자지구 전쟁범죄·인도주의 위기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일주일
팔레스타인 사망자 최소 197명
절반 가까이 어린이나 여성
미국 반대로 유엔 공동성명 무산

스라엘군과 하마스의 충돌은 2014년 50일 동안 이어진 가자전쟁 이후 최대 규모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쏜 로켓포는 일주일 동안 약 3천발이나 되고 이스라엘도 연일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과 포격에 나서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최소 197명이고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92명이 여성이나 어린이이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어린이 사망자를 전체 사망자의 4분의 1가량인 52명으로 집계했다.

16일에는 1살짜리와 3살짜리 아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이스라엘 미사일이 가자지구의 한 팔레스타인 아파트를 타격하면서 이슬람권 휴일을 즐기던 어린이 8명과 여성 2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다.

가자지구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봉쇄 정책으로 의료 시설이 부족해지고 식수·전력 등의 공급도 충분하지 않아 부상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주민 최소 10명이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탄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파악된다. 팔레스타인 인명피해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것은 기본적으로 양측의 군사적 차이에 비롯된다. 이



1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가자시에서 전날 밤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 주민 17명의 시신을 앞에 두고 추모객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산체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보복 공습 7일째를 맞은 이날 하루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42명)가 나왔다. /연합뉴스

스라엘군은 정교한 아이언돔 미사일로 하마스의 로켓포를 상당수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었다. 반면 하마스는 로켓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 약 200만명

이 사는 가자지구가 세계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인 점도 팔레스타인의 인명피해에 영향을 줬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공격 행위는 전쟁범죄에 해

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다포 아칸데 옥스퍼드대 교수는 NYT에 “민간인을 죽이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전투병들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인도주의법을 지켜야 한다”며 민간인 살해를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분쟁을 조정할 유엔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6일 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 사태가 처참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안보리는 이스라엘 우방인 미국의 반대로 공동 성명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이스라엘 책임자인 오마르 사키르의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담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중동의 대표적 우방인 이스라엘에 매년 38억 달러(약 4조3000억원) 정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이스라엘의 편을 계속 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자국 영토로 수천 발 로켓포 공격이 날아들면 이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옹호했다. /연합뉴스



로마 트레비 분수 다시 인파 북적 이탈리아 로마의 관광 명소인 트레비 분수 주변에 16일(현지시간) 관광객들이 모여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증을 가진 일부 국가의 입국자들에 한해 격리 의무를 해제했다. /연합뉴스

“빌 게이츠와 불륜” MS 직원 폭로...다른 직원에도 추파

최근 이혼을 발표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가 약 20년 전 사내 한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수년간 유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MS 이사회는 2019년 말 자사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한 여성에게서 2000년부터 수년간 빌 게이츠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왔다고 폭로하는 편지를 접수했다. 2019년은 멀린다가 변호사를 고용해 본격

적으로 이혼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진 때다.

이사회는 외부 법률회사를 고용해 진상 조사에 나섰고, 이에 따라 빌 게이츠가 이사회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지난해 3월 빌 게이츠는 자선사업에 힘쓰겠다고 이사회에서 스스로 물러나 바 있다. 당시 그는 그가 이사에 재선임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때 그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연합뉴스

‘화성 착륙’ 성공한 중국 “다음 목표는 목성...탐사선 더 보낼 것”

탐사로봇 3개월간 화성 표면 조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화성 착륙에 성공한 중국이 다음 목표는 ‘목성’이라며 우주 탐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17일 인민일보(人民日報) 등에 따르면 중국 화성 탐사 프로젝트 총설계자인 장릉차오(張榮樞)는 15일 중국중앙(CC)TV에 출연해 화성과 목성 등에 더 많은 탐사선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화성 탐사선 ‘텐윈(天問) 1호’는 지난 15일 오전 7시 18분께 화성 ‘우토피아 평원’ 남부

에 착륙했다. 지난해 7월 로켓 장정(長征) 5호에 실려 지구를 떠난 지 10개월 만으로, 중국은 미국과 구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화성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남은 과제는 탐사로봇 ‘주룽(祝融)이 착륙선에서 내려와 약 3개월간 화성 표면을 조사하는 일이다. 수집된 영상과 정보는 화성 주위를 돌고 있는 궤도선을 통해 지구로 전송될 예정이다.

장릉차오는 “궤도선은 탐사로봇을 위한 중계 통신 기능뿐만 아니라 화성의 지형과 우주 환경 등을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한 뒤 “화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핵심 기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미래 개발 계획에 포함된 ‘행성 탐사’ 프로젝트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텐윈 1호의 착륙 성공으로 이번 임무의 성공에 가까이 가게 됐다”며 “우리의 다음 임무는 텐윈 2호, 텐윈 3호 등 더 많은 탐사선을 화성과 목성 등에 보내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우리는 ‘중국식 속도’에 맞춰 가능한 한 빨리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과학적 탐사를 통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여섯 철자 한 단어’ 트윗에 가상화폐 시장 또 충격

다음 분기 비트코인 처분 시사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급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여섯 철자 한 단어 트윗이 가상화폐 시장을 또 흔들었다. 테슬라가 현재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전량 처분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 누리꾼의 트위터 글에 머스크가 댓글을 달았고, 그 직후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16일(현지시간)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중단에 이어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이디 ‘미스터 웨일’은 이

날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분 나머지를 처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책할 것”이라며 “머스크에 대한 증오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나는 머스크를 탓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에 머스크는 “인디드(Indeed·정말이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머스크의 이러한 답변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는 최근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모양이다. 머스크는 지난 12일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방침을 돌연 발표하면서도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팔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불과 나흘 만에 앞뒤 설명 없이 달랑 여섯 철자 댓글 하나로 비트코인 처분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받게 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 방송은 “테슬라가

나머지 비트코인 보유분을 팔았거나 팔 수도 있음을 머스크가 암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머스크의 댓글만으로 비트코인 처분을 암시했다고 보기에는 불확실한 점도 있다. ‘인디드’라는 댓글 이외에 어떤 배경 설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머스크의 트윗이 비트코인 처분을 고려 중이거나 매각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도 “머스크가 비트코인 처분에 동의했는지, 머스크가 (최근 발언으로) 비판에 직면했다는 심정에 동의했는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인디드’라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머스크의 여섯 글자 한 단어 트윗은 떠나 비트코인 처분을 시사했다는 해석만으로도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